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봉인가!”



7조 4천억 원을 미국에 헌납! 미국과 미 군수업체만 배 불리는 F-35 도입 안돼 !

대미 굴욕협상!

국방부는 차기전투기로 F-15SE 도입 결정을 전격적으로 번복하고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다는 명분을 들어 F-35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파행적인 기종 변경 과정과 스텔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F-35 도입은 졸속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수의계약과 FMS라는 불리한 협상 방식을 감수해야 했고 일본, 이스라엘 등에 비해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스텔스 만능 아니다! 환상에서 벗어나야

F-35가 도입될 2018년 쯤이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개발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만능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김관진 전 국방장관)

수의계약으로 졸지에 ‘을’로 전락한 한국!

국방부는 F-35 도입을 위해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F-35만 참여하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했고, 일본은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미국으로부터 엔진, 레이더 등의 첨단기술획득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창정비도 맡게 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입장 변화〉

경쟁입찰 당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후
스텔스 동체조립 등 핵심기술 이전	스텔스 기술 이전 NO!
최종 조립라인 한국 건설, 부품 수출	최종 조립라인 한국 건설 NO!

미 정부와 무기업체의 봉으로 전락한 한국

FMS 방식은 기술이전과 가격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입니다. 때문에 한국 국방부도 미국에 FMS 방식이 아닌 상업구매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F-35를 도입 기종으로 내정하고 계약을 서두르다 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FMS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국방부입니다.

하지만 FMS 방식이라고 해서 한국처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FMS 방식으로 F-35를 도입하지만 자국산 전자전 장비 및 자국산 부품을 장착하는 등 사실상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MS 방식의 문제점

- ▶ ‘상한가 없는 개산계약, 가격 상승 폭 알 수 없음
- ▶ FMS 행정비 3.8% 지급 (약 2000억 원)
- ▶ 계약 이행 보증금 한국 부담
- ▶ 지체보상금 부과 불가능
- ▶ 선급환급보증금 예치 불가
- ▶ 기술획득과 절충교역 협상에서 불리함



대일 종속 협상!

F-35 운영 일본 종속 가능성 커



한국과 일본 F-35 도입방식 비교			
한국		일본	
40대	도입대수	42대	
대당 2억 달러 상회	가격	대당 2억4000만 달러	
한·미 동맹 강화	거래 외 성과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해제	
40대 모두 완제품 구매	사업방식	4대 완제품 구매, 38대 일본생산	
수의계약	사업구조	공개경쟁 (보잉, 록히드마틴, 유로파이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도입	도입시기	2014년 4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생산	
일본 미쓰비시 정비 예상	정비	일본 미쓰비시 정비	
거의 없음	부품생산	일본에서 엔진, 레이더 등 50%이상 생산	
거의 없음	기술이전	F-35 생산으로 첨단 항공기술 확보 가능	

〈출처: 문화일보〉

한국 F-35 'MADE IN JAPAN' 부품 사용하고 창정비까지 일본에 의존?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등 F-35 도입 국가에 대한 부품 제공과 아시아 창정비 허브까지 획득했습니다. 특히 F-35 부품을 생산하게 된 일본 기업은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입니다. 한국은 F-35의 부품 수입과 창정비를 일본에 의존해야 하며 운영유지비를 매년 일본과 미쓰비시에 지불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차기전투기 사업 원점 재검토!

F-35 도입 예산 3,600억원(2015년) 전액 삭감!

F-35 도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방부의 대미 굴종과 무능이 초래한 국익 훼손 사업으로 원점 재검토 해야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공동개발국인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도 F-35 도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구매 수량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우리 국회도 F-35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F-35 도입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야 합니다.

F-35도입 예산 삭감 이렇게 해요!

F-35는 7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도입 비용에 비해 우리 국방에도 항공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 예산입니다. 이를 삭감하여 평화 증진과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주변에 알리기(F-35도입 반대 홍보지 건네주기)
- ◆국방부(☎ 02-748-5520)에 항의전화 하기
- ◆방위사업청(☎ 02-2079-6020) 항의전화 하기
-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F-35 도입예산 삭감 전화 문자, 이메일, 트윗 보내기



여러분의 참여가 평화와 복지세상을 열어갑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후원)가입 02)711-7292 www.peaceone.org